

COP28 Takeaways

December 2023 | ESG Newsflash

전 세계 198개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약 9만 명이 참석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됐습니다.

약 90여 개 의제가 다뤄진 가운데,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196개 문항의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가 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던 COP28의 합의 내용과 과제는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일PwC ESG Platform은 글로벌 기후대응 정책의 토대가 될 COP28의 주요 사항을 소개합니다.

[COP28 - Home](#)



COP28의

중요한 성과 및 주요 내용



COP28의 주요 성과는?

COP28 최종 합의문과 총회에서 논의된 의제들 중 우리 기업들이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UAE 컨센서스' 채택

이번 COP28에서는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화석연료 퇴출'을 두고 당사국 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폐막일(12월 12일)을 하루 넘긴 13일에 최종 'UAE 컨센서스(The UAE Consensus)'가 채택됐습니다.

• '전 지구적 이행점검' 평가 결과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최초로 이번 COP28에서는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이행 한다면 지구 온도 상승을 2.1 ~ 2.8도로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탈탄소화시대 첫 걸음... '화석연료로부터 전환'

COP28가 열리는 동안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노르웨이 및 기후변화 취약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뜻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합의문에 명시하는데 찬성했습니다. 반면, OPEC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은 해당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 간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문구에 국가끼리 대립하는 이유는 국제회의 공식 합의문에 담는 표현에 따라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식 폐막일을 넘기며 채택된 마지막 합의문에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Phase-Out)' 보다 완화된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에너지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3배로

합의문에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기준의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가 시킨다는 목표가 포함됐습니다. COP28가 열리는 동안 UAE, 미국, 한국을 포함한 총 130개국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COP28의

중요한 성과 및 주요 내용

- **한국 포함 22개국, 원자력 에너지 3배 확대 약속**

합의문에는 원자력과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을 포함한 22개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3배로 증가시키는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 **'손실과 피해 기금' 이행 방안 합의**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선진국의 반대로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COP27에서 해당 기금을 조성하는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한 데 이어, 이번 COP28에서는 선진국의 공여 의무와 수혜국 범위 등 세부 사항을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금은 월드뱅크(World Bank)가 임시로 유치할 예정이며, UAE와 독일이 각 1억 달러(약 1305억 원),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 1억 800만 달러(약 2367억 원) 미국이 1,750만 달러(약 228억 원), 일본이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등의 기금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해당 기금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COP28의

중요한 성과 및 주요 내용



기타 주요 성과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사용 및 채택 확대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 뿐만 아니라, 140개 이상 기업, 투자자 그룹, 기관 투자자, 증권거래소, 다자개발은행, 비정부기관(NGO) 등 약 400개 기관이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사용과 채택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 규제 당국: 아세안 회원국, 브라질, 브루나이, 캐나다, 유럽연합(EU), 독일, 가나, 홍콩, 일본, 케냐, 모리셔스, 멕시코, 미얀마, 나이지리아, 필리핀, 싱가포르, 튀르키예, 영국, 우루과이, 베트남 등

- 한국 주도 이니셔티브: 녹색전환(GTI)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번 COP28에서는 한국 정부 주도로 두 가지 이니셔티브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주도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기후변화 대응 다자협력 플랫폼입니다. 현재 7개국*과 7개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COP28에서는 한국 정부가 특별 총회를 열어 GTI 중장기 전략과 아시아 각국의 녹색 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한국 정부가 결성한 무탄소 연합(Carbon-Free Alliance, CF연합) 이니셔티브 원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 7개국: 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 7개 기관: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국제물파트너십, 아시아물위원회,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총회 최초 '농업과 식량' 선언에 134개국 지지

식량 및 식품 분야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총회(COP)에서 중요한 의제로 선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COP 역사상 최초로 식량 안보 의제를 처음 다뤘습니다. 이번 COP28에서 134개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 복원력 있는 식량 시스템, 기후 행동에 관한 COP28 UAE 선언'에 지지 표명했고, 이에 따라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